

## 2025 경기예술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 모든예술31 】 심의평

먼저 2025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신 모든 분께 경기문화재단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예술인·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심의는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9개 지역의 예술단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심사는 1차 행정심사와 2차 서류심사, 3차 인터뷰 심의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 서류심사는 337건 중 행정심사를 통과한 315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자택심사와 조정회의를 통해 52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3차 인터뷰 심의는 이 52개 예술단체와 개인의 사업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2차 서류심사와 3차 인터뷰 심의는 사업계획과 작품 내용, 지원자의 역량, 기대 효과 등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기획 의도가 모든예술31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즉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가, 해당 지역과의 연계되어 있는가, 즉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심사에서는 서류에 제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심의는 장르나 경력 등과 무관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다년간 지원을 받은 단체나 예술가 또한 신진 단체들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여 차별, 혹은 역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만큼 다양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특정 장르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장르의 기계적 균형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장르의 여러 단체 선정된 것은 그 결과입니다.

또한, 많은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인터랙티브 아트, 혹은 이머시브 시어터 등 관객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시민과 공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엿보았습니다. 또한, 작품 외적으로도 시민 대상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직접적인 교류하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적인 면에서는 당대 한국 사회나 해당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 결과 모든 심의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한 단체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 예술가들의 자생력을 증진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지원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에서 중진까지 다양한 창작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예술가들과 지역 시민들과의 교류에도 힘을 쓰는 모습에 심사위원들은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선정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액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평균 지원액을 상회하여 예산을 책정한 경우에도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감액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다년 지원단체들에 대한 지속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신진 단체의 진입 방안으로 지속단체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는가, 혹은 지속단체의 선정 비율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년도에는 사업의 진행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에 선정된 예술단체와 예술가분들께서는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로 긍정적 효과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2025.3.11.

심의위원

최지영 (예술로 커뮤니티씨어터 협동조합 이사장)

신정호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장)

김일송 (이안재 대표)

석혜원 (스페이스엑스엑스 대표)

정대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담심의관)